



주간통일정세 2010-48(2010.11.22~11.2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4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정일·정은, 황남도 오리공장 현지지도(11/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황해남도 룡연군의 룡호오리공장과 룡연바닷가양어사업소, 룡정양어장을 각각 현지지도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은 반년 만에 건설한 오리공장을 둘러본 후 “인민들에게 훌륭한 식생활조건을 보장해주려면 가금업을 비롯한 축산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모든 목장의 생산공정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빨리 자라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우량품종들을 적극 연구, 개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밝힘.
 - 그는 또 양어사업소와 양어장 시찰에서도 “바다를 낀 모든 곳에서 실정에 맞는 바닷가 양어와 양식사업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말함.
 - 통신은 룡연바닷가양어사업소에 대해 “조선에서 처음으로 철갑상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순응시키는 데 성공한 곳”이라고 소개
 -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홍석형(이상 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겸직),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직), 태종수(당 비서 겸직)가 수행했으며 양어사업소와 양어장 시찰에는 이들 외에 북한군 대장들인 김원홍·김명국·현철해·리명수가 포함
- **北김정일·정은, 평남 대안친선유리공장 시찰(11/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평안남도 대안군의 대안친선유리공장과 강서군의 강서약수가공공장을 현지지도(시찰)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 부자의 공개 활동 보도는 통신이 23일 평양의학대학과 룡성식료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한 이후 이틀만임.
 - 김 위원장은 대안친선유리공장에 새로 건설된 강질유리직장(생산라인)을 둘러본 후 “조·중(북·중)친선의 상징으로 되는 이 공장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늘리는 것은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의 생활력을 과시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함.
 - 또 강서약수가공공장에서는 CNC(컴퓨터수치제어)화된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밝힘.



- 대안친선유리공장은 중국 정부가 2천400만달러를 무상 지원, 2005년 10월 완공한 북한 최대의 판유리 생산공장이며, 강서약수는 북한이 '조선국보 56호'로 지정할 정도로 북한에서 최고로 꼽히는 약수임.
- 시찰에는 정치국 위원인 김국태(당 검열위원장 겸직), 최태복·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겸직)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당 비서 겸직), 주규창(당 부장 겸직), 박정순(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직) 외에 국방위원회 국장인 현철해·리명수가 수행

● 北, 연평도 도발 '김정은 영도' 선전(11/25, 데일리NK)

-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영도'로 선전하고 있다고 매체가 전함.
- 이 매체는 내부소식통을 인용, "공장의 초급당 비서가 24일 저녁 총화 시간에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을 넘보고 도발을 자행했지만 장군님(김정일)의 군대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몇 배로 보복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청년대장(김정은) 소리를 강조하면서 '적들의 대결책동이 몰아쳐도 청년대상이 영도하는 혁명적 무장력이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는 승리뿐이다'라고 교양했다"며 "이렇게 정세가 복잡할수록 장군님과 청년대장을 잘 모셔야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는 선전에도 열을 올렸다"고 소개
- 그는 "이러한 교양 외에도 23일 오전에 노동적위대와 교도대에 대한 비상소집이 진행돼 각 진지에 투입된 상태"라고 말함.
- 이어 "당국이 TV를 통해 군사조치에 대한 소식을 전했지만, 주민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며 "주민들도 면역이 생겨서 놀라지 않는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평양무용大 시찰...외교라인 대거 대동(11/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평양무용대학과 해방산 기슭에 건설된 주택을 현지 지도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 부자의 공개 활동 보도는 통신이 25일 평안남도 대안군의 대안친선유리공장과 강서군의 강서약수가공공장을 시찰했다고 전한 이후 하루만임.
- 특히 이번 시찰에는 지난 8일 조명록 전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조문 이후 공개 활동이 뜸하던 강석주 부총리,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등 외교라인이 총출동해, 연평도 포격 도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됨.
- 평양무용대학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무용극장 등을 둘러본 뒤 교육에 필요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과업의 구체적인 내



용은 언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해방산 기슭의 주택을 시찰하고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려나가기 위해 도로건설, 각종 건축물의 배치와 형식을 잘 하고 인민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 보건, 체육, 문화후생시설과 편의봉사기지를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소개
- 이날 현지지도에는 강석주, 김양진, 김영일 뿐 아니라 정치국 위원인 최태복·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겸직)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당 비서 겸직), 주구창(당 부장 겸직), 박정순(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직) 외에 국방위원회 국장인 현철해·리명수가 수행

● 北김정일, 연평도 공격 후 ‘북·중우호’ 과시(1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25전쟁 때 전사한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의 묘에 화환을 보내고 중국 지원으로 건설된 공장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과시, 눈길을 끄.
- 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마오안잉의 전사(11.25) 60주기를 맞아 그의 묘에 화환을 보냈다고 전함.
- 그동안 중국군의 6.25참전 기념일(10.24)에 맞춰 김 위원장이 그의 묘에 화환을 보낸 적은 있지만, 전사일에 헌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임.
- 더욱이 북한군의 총책임자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마오안잉의 묘까지 직접 찾아가 참배함.
- 북한 조선중앙TV도 이날 밤 중국의 TV연속극인 ‘마오안잉’을 방송했으며 “오늘은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 주석의 아들 모안영 동지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60돌이 되는 날”이라고 소개함.
- 따라서 이번 헌화는 연평도 공격 이후 한국과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데다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믿을 곳은 중국뿐’이라는 북한 당국의 절박한 정세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北, 김정은 권력강화 위해 간부숙청(11/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권력강화를 위해 간부들을 숙청하며 공포감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량강도 혜산시의 소식통은 이 방송에 “지난 6일 혜산 기관차대 초급 당위원회 책임비서인 김용춘(63)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그의 가족들은 수용소로 끌려갔다”면서 “그가 무슨 간첩행위를 했는지 알려진 것이 없어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말함.



- 혜산시의 한 주민도 “최근 중앙당 검열위원회 검열로 도당, 도보위 부, 보안서, 검찰의 간부들이 무더기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량강도당 간부부장, 김정숙군 책임비서, 량강도 혁명전적지관리총국장 등은 남조선에 비밀을 넘겨주었다는 간첩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힘.

■ 김정일동향

- 11/22 김정일, 용연바닷가 양어사업소와 용정양어장 현지지도(11/22, 중방)
 - 김정은(黨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黨 비서들),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태종수(정치국 후보위원), 김원홍·김명국·현철해·이명수(軍 대장들) 동행
- 11/22 김정일, 용호오리공장 현지지도(11/22, 중방)
 - 김정은(黨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黨 비서들),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태종수(정치국 후보위원) 동행
- 11/22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11/23, 중방)
- 11/24 김정일, 대안천선유리공장에서 새로 건설된 강질유리직장과 강서약수가공공장 현지지도(11/25, 중통·중방)
 - 김정은(黨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국태(黨 검열위원장), 최태복·홍석형(黨 비서),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黨 비서) 등 동행
- 11/24 김정일, ‘신창순’(평양시 서성구역 장산동)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11/24, 중통)
- 11/25 김정일, 해방산 기슭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과 개건된 평양 무용대학 현지지도(11/26, 중통·중방)
 - 문경덕(평양시黨 책임비서), 최태복·홍석형(黨 비서), 김경희(黨 부장), 강석주(내각 부총리),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黨 비서), 주규창(黨 부장), 박정순(黨 제1부부장),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 등 동행.
- 11/25 김정일, 개성시 무역관리국 등 援軍사업에서 모범을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11/26, 중방)
- 11/25 김정일, ‘모안영’(毛岸英, 中 ‘毛澤東’ 長男)의 墓(平南 회창군)에 사망 60돌 화환 전달(11/25, 중통·중방)

■ 김정은동향

- 11/22 김정은, 김정일의 용연바닷가 양어사업소와 용정양어장 현지지도 동행(11/22, 중방)
- 11/22 김정은, 김정일의 용호오리공장 현지지도 동행(11/22, 중방)



- 11/24 김정은, 김정일의 강질유리직장과 강서약수가공공장 현지지도 동행(11/25, 중통·중방)

나. 경제

● 北·中, 연평도 포격 외중 경협 합의(11/24, 신화통신)

- 북한과 중국이 연평도 포격 외중이었던 23일 정부 간 경제·무역 협력에 합의함.
- 통신은 이날 북·중 양국이 평양 인민대회당에서 제6차 정부 간 회담을 벌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으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음.
- 양국은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나뉘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측에서는 구분태 무역성 부상과 중국측에서는 왕허민(王和民)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함.
- 통신은 이어 북중 양국이 경제와 무역 협력을 증진시켜가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강석주 내각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만수대의 사당에서 접견했다고 전함.
- 북·중 양국은 올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차례 방중과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노동당 창당 65주년을 계기로 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달초 최영림 내각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경협을 목적으로 동북3성을 순방해 눈길을 모음.

다. 군사

● 北인민군 내 ‘김정은 충성경쟁’ 가열(1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북한군 내부에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RFA가 보도
- 북한군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이 방송에 “최근 북한군 부대들에서 ‘김정은 청년대장의 영도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가 등장하고, 말끝마다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받들어’를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함.
- 최근 청년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일꾼(간부) 강습회’에 다녀온 군인들은 “내년 초 김정은 생일(1월8일)에 맞춰, 군대와 사회에서 선발된 청년동맹 간부들이 평양에서 ‘청년동맹 일꾼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이 방송에 말함.
- 또 인민군 출신 탈북자단체인 ‘북민전(북한인민해방전선)’ 측은 “11월 들어 북한군 부대들에 설치돼 있던 ‘김일성·김정일연구실’에 김정은의 혁명활동 도록이 등장했다”고 전했고, 북한군 출신 탈북자는 “인민군 부대에 ‘김정은 배려’라는 명목으로 정기휴가제가 다시 등장했고, ‘웃으며 근무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중대 단위로 화선악단



을 만들고 있다”고 말함.

- RFA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을 군에서 먼저 벌이는 것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군을 장악해 후계체제를 다지려는 의도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군대 내 충성경쟁이 과열되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남도발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함.

라. 사회·문화

● 北축구 김정훈 감독, AFC행사 참석(11/22, 조선신보)

- 2010 남아공 월드컵 직후 강제노역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월드컵 축구대표팀 김정훈 감독이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감독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고 신보가 전함.
- 신보는 “AFC가 주최하는 ‘감독의 밤’ 행사에 조선(북)대표단이 참가한다”며 “조선에서는 1966년 영국에서 진행된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조선팀의 책임감독이었던 명례현, 2006년 청소년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1위를 쟁취한 국가대표팀의 책임감독이었던 최광석, 올해 44년 만에 월드컵경기대회에 출전한 조선팀의 책임감독인 김정훈이 참가하게 된다”고 밝힘.
- 일부 언론은 월드컵 직후 북한축구대표팀이 3연패를 당하고 귀국하고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사상비판을 받았고, 김정훈 감독은 강제 노역형에 처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음.
- 그러나 북한 축구협회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해명요구에 “김정훈 감독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전혀 근거 없는 보도일 뿐이다”고 반박함.
- 신보는 “이번 행사에서는 월드컵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축구경기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고 아시아의 축구발전에 크게 공헌한 감독들에게 아시아축구연맹 금복무상을 수여하게 된다”며 “조선에서는 명례현, 김정훈이 이 상을 수여받게 된다”고 덧붙임.

● 평양 평은 속 긴장감(11/25, 교도통신)

-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이들이 지난 25일 평양 시내를 평소와 다름 없이 평온하지만, 일부 긴장감이 감지됐다고 통신이 평양발로 보도
- 통신은 특히 “남측 도발(군사 훈련)에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평양 주민의 인터뷰를 실어, 북한 주민들도 연평도 포격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시킴.
- 이날 저녁 수은주가 영하 부근으로 내려가 쌀쌀한 평양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거리와 직장으로 향했으며, 일부 시민은 주요 거리를 따라 늘어선 주점에 들르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함.



- 11월 북한에는 기념일이 없지만, 평양의 많은 건물은 형형색색의 조명을 밝힘.
- 이런 가운데 국영 TV와 라디오는 연평도 포격에 관한 북한 인민군과 외무성의 발표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장과 농장, 군부대 현지 지도 사실도 전함.
- 또 매체들은 이들 보도 사이 사이에 군가 등을 편성해 긴장이 고조됐음을 암시했으며, 평양 공항의 보안 검색도 강화됨.
- 공항 보안 관리들은 통상 외국 방문객의 랩톱 컴퓨터나 휴대전화기 정도만 검색했으나, 이날은 전자사전과 헤어드라이어 등 다른 전자제품도 검색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은 연평도 승전 무드(11/26, 마이니치신문)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 북한 내부에서는 승전(勝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베이징 발로 보도
- 이 신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자행된 지난 23일 전후 친척 방문차 평양에 체재하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재일(在日) 한국인 남성이 “북한에서는 모두 (남한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받아 격렬하게 반격해 대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연평도 포격과 관련 ‘영해’를 한국 측이 포격했기 때문에 자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고 함.
- 이 신문은 자사가 작년에 입수한 북한 당국의 내부 문서에는 김정인에 대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포술을 공부해 포술에 밝다”고 소개돼 있다고 보도
- 이 문서는 “김정은이 작성한 포병이용계획에 베테랑 장군들도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북한의 군 정보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올들어 포병부대의 훈련 영상이 보도돼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이 신분을 감추고 포병부대에 소속돼 있었다는 일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보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여자배구팀, 11/21 中國팀 상대 3:2 조별리그 승리 및 ‘아시안 게임’ 11/18-20기간 女·男사격과 수중발레에서 銀·銅메달 추가 (11/22, 중통)
- 北여자배구팀, 11/24 아시안게임에서 태국팀을 3:2로 이기고 준결승전 진출 보도(11/24,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북, 유엔사 장성급회담 거부(11/25, 연합뉴스)

- 북한은 이날 유엔군사령부가 제의한 ‘북한군-유엔사 장성급회담’을 거부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힘.
- 이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사가 제의한 장성급회담을 거부했다”면서 “북한은 장성급회담에 나와 실익을 얻지 못할 것이란 판단 때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이 아·태지역에서의 무력증강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잠재적 적수들을 제압하고 군사적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자위적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우리(北)의 노력도 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11/22, 중통·노동신문)
- 「G20 정상회의」결과에 대한 ‘파이낸셜 타임스’(英신문) 등 批評 傳言 및 이번 회의는 미국이 “自國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입장과 태도로 성과 없이 끝난 맹랑한 회합”이라고 惡評(11/22, 중방)
- 日本의 러·中과의 ‘남부쿠릴열도’ 분쟁 및 ‘독도영유권 주장’ 등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 대립을 “日제국주의시대 영토확장 책동의 연장”이라고 비난 (11/24, 중방·민주조선)
- ‘美 F-22A랩터전투기의 南 순환배치 계획’ 관련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범죄적 기도를 보여준 것으로써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再次 비난(11/25, 평방)
- 北, 러시아연방 안전이사회 부서기장 ‘올라지미르 나자로브’가 “韓美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했다”고 11/24 ‘이타르타스’ 통신인용 보도 (11/26,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핵전문가 해커가 전한 北우라늄농축시설(11/22, 연합뉴스)

- 지난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백악관에 영변 지역의 경수로와 우라늄농축시설 추진 현황을 보고한 미국의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북 보고서를 통해 영변 핵시설 견학기를 공개
- 헤커 소장의 보고서에는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 2천 개 규모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경수로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에 대한 북한 측 관리의 설명은 물론 “현장에서 1천 개가 넘는 원심분리기를 볼 수 있었다”며 자신의 현장 시설 목격담도 적음.



[해커소장의 보고서 요지]

○ 영변 핵과학 연구센터

- 2004년 1월 이후 여섯 번째 방북임. 이번 방북은 북한이 2009년 9월 선 언한 우리농농축 기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을 보고 싶다는 요청으로 이뤄짐. 11월 12일 영변 지역에 갔고, 경수로 건설 현장과 우리농농축 원심분리기 설비를 볼 수 있었음. 영변에서 몇 명의 영변 기술자들과 북한 원자력총국 인사들을 만남.
- 기술책임자는 내(해커)에게 이렇게 말함. “1980년, 1990년대에 2천MW 경수로를 2003년 무렵 제공받기로 하고 우리(북) 원자로를 포기했다. 1990년대 초반 당시 50, 200 MW 흑연감속원자로를 구축했었지만, 그 시설은 지금 못쓰는 시설이 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우리(북)는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수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2009년 4월 15일 외무성은 경수로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우리(북)는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해 재처리해서 군부에 무기화를 위해 제공했다. 하지만 핵프로그램은 예상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전기를 공급하지 못했고, 우리(북)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북)의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기로 했다. 우리(북)는 6차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긍정적인 합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북)는 우리(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북)는 영변 핵시설을 경수로와 파일럿 농축 설비로 바꿀 것이다. 우리농농축을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우리(북)는 어려움이 있지만 경수로 연료 주기를 진전시키고 있다. 경수로와 우리농농축을 위한 장소를 지정했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고, 우선순위가. 설비 건설은 완성됐고, 설비는 가동되고 있다.”
- 우리(미국)는 영변 시설을 3시간 30분 동안 안내받았음. 북한 기술자들은 경수로와 우리농 농축시설 등 2개 시설에 대한 기본만을 보여주라는 지침을 분명히 받았으며, 최소한의 질문에만 답변함.

○ 25~30 MW 경수로 실험용 경수로

- 위성사진을 통해 건설공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였던 5MW 실험용 원자로가 있었던 장소로 안내받음.
- 현장에서 가장 깊이 파여진 곳은 대략 7m 깊이, 가로 세로 40, 50m 가량이었음. 원자로 격납용기를 위한 28 평방미터 규모의 둥그런 콘크리트 기반도 보임. 우리(미국)가 현장에서 목격한 원자로 격납용기는 약 1m 높이었음. 북한 기술자는 원자로 격납용기는 지름 22m, 두께 0.9m, 높이 40m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북한 기술자는 100 MW 용량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전력 용량을 특정해서 말하지 않음. 다만 에너지 전환효율이 30% 정도라고 밝혔기 때문에 역량을 25~30 MW 급으로 추정
- 북한 측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한 1천MW 경수로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이 경수로는 과거의 흑연감속원자로와는 다른 것이라며, 우선 소규모 경수로를 만들고, 기술이 완성되면 대형 경수로를 지을 것이라고 밝힘.



- 기술 책임자는 이 건설공사는 올해 7월31일 시작됐다고 밝혔으며, 완공 목표일은 2012년이라고 말함. 북한 측은 충분한 천연우라늄 광석을 갖고 있다고 강조
- 원자로 설계팀은 대부분 4대로 경험이 없으며 젊고 새로운 팀이었음.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숙련된 흑연감속원자로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함. 원자로 설계팀 멤버들은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영변 핵시설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임. 과거 KEDO 경수로 멤버는 없다고 함.

○ 우라늄 농축설비

- 우리(미국)는 약 100m 길이의 또 다른 공장의 2층 제어실 전망대로 안내됐음. 전망대의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인 광경은 놀라웠음.
- 당초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돼온 소규모의 원심분리기들이 아니라, 1천개가 넘는 깨끗한 현대식 원심분리기를 볼 수 있었음. 원심분리기들은 모두 가지런하게 정렬돼 있었음.
- 북한 기술 책임자는 지난해 4월에 원심분리기 설치가 시작됐으며, 수 일 전에 완성됐다고 설명
- 원심분리기는 지름 20cm, 높이 180cm로 추정됨. 북한 책임자는 공장에는 2천개의 원심분리기가 구축돼 있다고 말함. 원심분리기의 제원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음.
- 우리(미국)가 파키스탄이 개발한 'P-1형 원심분리기냐'라고 질문한 데 대해 '아니다'라고 답변함.
- 책임자는 '만든 재료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지만 네덜란드의 알메로나 일본의 로카쇼무라의 원심분리기를 모델로 했다'고 말함.
- 그는 또 농축 용량은 연간 8천kg-SWU이며, 평균 3.5%의 저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고, 건설 중인 경수로로는 2.2~4%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도록 설계돼있다고 말함.
- 제어실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음. 과거 1950년대의 미국이나 1980년대 구 소련의 재처리 시설이나 원자로 제어실과는 완전히 달랐고, 미국의 현대적인 처리 시설에도 적합한 수준이었음. 제어실 뒷면에는 작동 수치를 나타내는 LED 패널이 있었고, 컴퓨터 통제장치들이 가동되고 있었음. 제어실에서 나와 2명이 일하는 복구실도 둘러보았음.
- 나(해커)는 2천개의 원심분리기를 이렇게 빨리 구축할 수 있었던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현재 이 시설들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냐고 물어보자, 그들(북)은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변함. 그들의 주장이 우리(미국)들이 직접 본 것들과 모순되지는 않았지만, 주장의 진위를 별도로 검증할 수는 없었음.
- 북한 책임자는 원심분리기에 주입하는 육불화우라늄(UF6)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함. 과거에는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음. 그들은 원심분리기 시설 규모에 맞는 충분한 처리용량을 갖고 있다고 말함.
- 산화우라늄 제조 역량 여부를 물어보자, 그들은 산화우라늄 제조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어렵고 문제에 봉착할 수 있지만 외부로부터 도움을 얻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함.



- 영변 핵시설의 고위 책임자는 현재 이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고 인정함.
- 내(해커)가 ‘국제사회는 이 시설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용으로 바뀌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제어실의 모니터를 보면 누구라도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설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
- 우리(미국)는 2천개의 원심분리기가 완전히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음. 하지만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거나, 조만간 그런 역량을 가질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비핵화는 없을 것이며, 북·미 공동 코뮌이체가 문제 해결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을 들었다고 밝힘.
- 북한 주장대로 연간 8천kg-SWU 규모의 농축 역량이라면 북한은 연간 최대 2t의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고, 시설을 전환하면 최대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음.
- 더 큰 우려는 이 시설과 같거나 더 큰 용량을 가진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별도의 장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임.

3. 대남정세

[연평도 포격 관련 기사]

- 北, 연평도 공격 전날 호국훈련 맹비난(11/23,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연평도 공격에 앞서 남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 호국훈련에 대해 22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민족끼리는 22일 ‘겨레의 염원과 시대적 지향에 역행하는 전쟁연습 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호국훈련을 겨냥,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
 - 이 사이트는 이어 “괴뢰 군부 호전세력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소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우리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적대감과 침략기도가 위험계선을 넘어선지 오래며, 괴뢰 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대결전쟁 책동에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며 대결과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의 북침전쟁 연습소동은 온 겨레에게 참혹한 재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스스로 파멸을 불러올 어리석은 행위”라고 강변
 - 이 사이트는, 합동참모본부가 호국훈련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17일에도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



- **北, 연평도에 해안포·곡사포 100여발 발사(11/23, 연합뉴스)**
 - 북한군이 23일 2시 34분께부터 1시간가량 서해 연평도 북방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로 해안포와 곡사포 100여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으며 우리(남) 군도 80여발 이상 대응사격을 함.
 - 남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2시 34분부터 2시 55분까지,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42분까지 해안포와 곡사포 100여발을 연평도로 발사
 - 합참 이봉우 공보실장은 “우리(남) 군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서해 남쪽으로 실시하던 중 북한이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 수발은 연평도에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연평도에 산불이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힘.
 - 남측군은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전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연합사령부와 연합위기관리태세 선포를 검토하기로 함.
 - 국방부는 이날 오후 5시55분 남북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하고 경고 후에도 계속 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함.
 - 앞서 북측은 오전 8시 20분 남측에 “남측이 북측 영해로 포사격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
- **개성공단 근로자 23일 입·출경 정상적으로 이뤄져(11/23, 연합뉴스)**
 - 북한이 23일 북한이 연평도 일대에서 도발한 가운데 이날 하루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입·출경은 예정대로 이뤄짐.
 -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하루 CIQ를 통해 입·출경할 예정이었던 인원(출경 477명, 입경 357명) 전원이 정상적으로 입·출경함.
- **통일부, “남북 적십자회담 무기 연기”(11/23,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남북 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군이 연평도에 해안포를 발사한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적십자회담을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함.
- **한적, 北수해 지원물자 전달 전면중단(11/24, 연합뉴스)**
 -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중국 단둥(丹東)에서 이뤄지던 대한적십자사(한적) 대북 수해 지원 물자 전달이 이날 전면 중단됨.
 - 단둥에 파견된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본부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수해 지원 물자의 북한 인도를 중단했다”고 밝힘.
- **北…“남측이 먼저 도발”(1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은 것에 대해, 남측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해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



- 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관한 ‘보도’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3일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 오후 7시 정각에 맞춰 나온 이 ‘보도’는 연평도에 해안포 사격을 퍼붓기 시작한지 4시간 20여 분만에 나온 북한의 첫 언급임.
 - 최고사령부 ‘보도’는 이어 “도발자들의 불질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다스리는 것은 남측 군대의 전통적인 대응방식”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 혁명 무력의 엄숙한 경고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고 위협
 - 이 ‘보도’는 또 “앞으로 조선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할 것”이라면서 “남조선 괴뢰들이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우리 혁명무력은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협박
 - 통신은 또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북)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
- **北대사, “연평도문제 안보리 사안 아니다”(11/24, 로이터통신)**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 대사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로이터통신에 “이 문제는 안보리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며, 남·북한간에 논의될 문제”라고 말함.
 - 그는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남·북한간의 지역적 문제”라고 말함.
- **北…금강산회담 요구(11/24, 우리민족끼리)**
- 해안포 공격으로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든 북한이 채 화약 냄새가 가지지도 않은 그 다음날 남측에 금강산관광 회담을 요구하고 나섬.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로막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부당한 구실에 매달리지 말고 관광재개를 위한 회담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면서 “우리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대화와 관계 개선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함.
 - 이 사이트는 또 회담재개에 앞서 금강산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을 먼저 철회하라는 남측 요구와 관련, “남측은 저들의 부당한 처사로 초래된 동결, 몰수 조치에 대해 반성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북의 노력에 적극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북남관계 개선에는 (금강산) 부동산의 몰수, 동결 문제도 다 포함돼 있다”고 주장
- **독일, 연평도 포격 관련 北대사 소환(11/24, 연합뉴스)**
- 독일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흥창일 주독 북한대사를 소환
 -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독일 정부가 북한 대사를 불러 포격에 대한 비판을 전달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앞서 안드레아스 페슈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무부는 북한 대사를 불러 고위 외교적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독일 연방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
- 총리실의 슈테판 자이베르트 대변인도 이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 공격으로 지역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독일은 남북한 간의 긴장 고조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

○ 北·中, 연평도 포격 속에도 ‘정상 교류’(11/24, 조선중앙통신)

- 북·중 양측이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정상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 통신은 중국 천주(陳竺) 위생부장이 이날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최창식 보건상과 회담을 하고 북·중간 보건 및 의학과학분야 협조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함.
- 천 부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하고 “앞으로 보건 및 의학과학분야에서 두 나라 정부사이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日, 조총련계 고교 수업료 지원 미루기로(11/24, 연합뉴스)

- 다카기 요시아키(高木義明) 일본 문부과학상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조총련계 고교의 수업료 지원을 더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힘.
- 다카기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측이 아직 수업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심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북한의 포격이) 주게 될 영향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北…또 “남측이 먼저 도발”(1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내세우며, 전날 남한군이 먼저 북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해 연평도에 대응타격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들은 우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섬(연평도) 남쪽 방향으로 포사격을 했다고 하지만 해상군사분계선으로부터 우리(북)측 영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그곳에서 포탄 사격을 하면 어느 방향을 쏘든 우리측 영해 안에 포탄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주장
- 이 담화는 또 “빈말을 하지 않는 우리 군대는 실탄사격을 감행한 적 포진지를 즉시 타격하는 자위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3년 8월30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그 어놓은 ‘북방한계선’ 때문에 초래된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라고 말함.
- 담화는 또 “남조선의 많은 산천과 바다, 섬들을 두고 하필이면 우리 코앞의 섬에서 포성을 울리고 화약내를 피운 적들의 처사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도발”이라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는 지금 초인적인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우리 군대의 포문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라고 위협함.



- **北, EU 대표단 방북中 연평도 공격(11/25, 연합뉴스)**
 - 북한이 유럽연합(EU) 대표단의 북한 방문기간에 연평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남.
 - EU 집행위원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을 맡는 벨기에의 외교부 아주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22일 평양에 들어가 방북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연평도 포격이 발생
 - 대표단은 필립 베케 벨기에 외교부 아주국장을 단장으로 해 EU 집행위 담당자, 이사회 사무국 담당자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됨.

- **北, 전군에 비상경계태세 2호 발령(11/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도발을 한 날 전군에 '비상경계태세 2호'를 발령했다고 RFA가 전함.
 - 이 방송은 북한군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23일 북한은 비상경계 태세를 갖추라는 총참모부 전신지시문을 전군에 하달했다”며 “모든 부대에 진지사수를, 출장 나갔던 군인들에게는 귀대를 지시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비상경계태세 2호는 ‘준전시상태’ 보다 낮은 단계의 경계태세로, 최고사령관 명령처럼 공개되지 않고 전신지시문으로 하달된다”며 “이번 사태로 군에서는 12월 초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동계훈련을 사실상 가동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함.
 - 탈북군인 출신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장세을 참모장은 북한 내부 군인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최고사령부 보도를 들은 군인들은 이번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줄로 알고 있다”며 “현재 부대들에서 일체 외출을 금지하고, 부업지(부대 식량 해결을 위한 농사일) 등 외부 근무에 동원됐던 군인들을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고 전함.
 - 또 북한 당국은 이번 포격도발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체제결속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RFA는 함경북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포격사건이 일어난 당일 초급당비서 등 직장 간부들은 ‘괴뢰도당의 전쟁도발 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 근무 장소를 절대 이탈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군중대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북한군…“도발하면 주저 없이 물리적 타격”(1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이 25일 연평도 포격과 관련, “조선 서해가 분쟁 수역으로 된 것은 미국이 우리 영해에 제멋대로 그은 ‘북방한계선(NLL)’ 때문”이라면 서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유엔사의 장성급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문에서 “벌어진 사태는 정전협정의 위반자가 남조선이고, 서해에 분쟁의 불씨를 심은 것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군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이 ‘북방한계선’ 고수를 위해 해상 침범과 포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이 통지문은 또 연평도 도발 당일인 23일 우리 군이 서해에서 벌인 훈련에 대해 “철두철미 사전 계획된 군사적 도발이며 사실상의 전쟁행위”라면서 “결국 연평도는 우리에게 군사적 도발을 가해온 본거지로 됐고, 우리 군대의 자위적 조치에 따른 징벌을 받게 됐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함.

○ 北, 해병부대 조준포격 시인…연평도 공격 사흘만에(1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평도 공격 사흘만인 이날 남측 해병대 포병부대를 정밀 조준해 포격했음을 처음 시인함.

- 하지만 무고한 우리 국민 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연평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든 민간인 거주지역 포격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음.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영해에 직접 불질을 한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명중 타격해 응당한 징벌을 가했다”면서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받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자들은 누구이건 가차 없이 무자비한 본패를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은 23일 연평도 공격 이후 당일 저녁 ‘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25일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통지문’을 통해 사흘 연속 ‘남측이 먼저 도발해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폈으나, 구체적으로 ‘남한 포대 타격’을 시인한 것은 처음임.

- 이 대변인 성명은 또 우리 정부의 교전수칙 개정 방침과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 계획에 대해,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소동으로 북남관계는 전쟁 전야의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괴뢰 패당이 또 우리의 존엄과 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 무서운 불벼락으로 적의 아성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준비를 갖췄다”고 협박함.

○ 北 연평도 포격 직후 김일성대도 ‘술렁’(1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군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 직후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교정에 ‘큰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나돌아, 학교 전체가 크게 술렁됐다고 RFA가 보도

- 함경북도의 한 대학생 소식통은 “북방한계선에서 큰 교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사건 직후 김일성대 학생들에게 알려졌다”면서 “자칫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돌면서 한때 대학 전체가 크게 동요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김일성대의 군 고위간부 자녀들과 황해남도 출신 재학생들을 통해 (연평도) 소식이 전해진 것 같다”면서 “지방출신 학생들이 가족들에게 교전 소식을 전하려고 한꺼번에 몰려들어, 교내 공중전화소가 북새통을 이뤘다”고 전함.

- 이어 “정기적으로 통화를 하는 김일성대 친구한테서 처음 (연평도) 소식을 들었다”면서 “김일성대 학생들은 처음부터 북측이 먼저 포격을 시작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임.

- RFA는 이와 관련,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은 고급정보 유통의 발원지로 통한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김정은의 지휘로 이번 사건을 벌였다는 소문이 대학 내에서 돌고 있다”고 밝힘.
- 이밖에 RFA는 북한 내에서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소문’에는 ‘북한군이 원래 1차 포격만 계획했는데 남한의 대응타격에 자극받은 강경파 군관(장교)들이 2차 포격을 가했고, 포격전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어 높이 치하했다’는 것도 있다고 소개

○ **北, 방사포탄에 ‘㉠’ 숫자 표기 발견(11/26,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에 쏜 122mm 방사포 로켓 포탄에 ‘㉠’이라고 표기된 숫자가 발견됨.
- 남한군 당국이 26일 공개한 이 포탄의 하단 추진체(노즐조립체) 부분의 날개 아래에는 동그라미가 쳐진 ‘㉠’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으며 이 숫자는 검은색 페인트로 손으로 쓴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지난 2일 천안함 격침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을 발표하면서 “우리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어떤 부속품이나 기재를 만들 때 필요한 숫자를 펜으로 쓰지 않고 새기고 있다”면서 “그 경우에도 ‘번’이 아닌 ‘호’를 붙여, ‘1번’ 표기는 우리의 통상적인 표기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음.

○ **양제츠, 北주중대사 면담…한반도문제 논의(11/26, 신화통신)**

-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처음으로 지재룡(池在龍) 주중 북한대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 양 외교부장은 이날 지 대사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한국과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 외교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
- 양 외교부장은 남북한 및 미국의 주중대사와 한반도 상황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전함.

○ **조선신보, “위기대처, 평화보장 대책 강구돼야(11/27, 조선신보)**

- 신보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지금은 무엇보다 눈앞의 위기에 대해 적절한 평화보장 대책부터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
- ‘연평도 사태, 부각되는 미국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 서해 연평도가 정전협정과 배치되는 완전한 무장지대, 북남 대결장으로 전변되었다”며 “긴장 고조가 임계점에 달하고 인민군의 포문이 의연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멋대로 교전상대의 자제력을 전제로 한 과거의 도발 악습을 되풀이한다면 파국적인 사태를 몰아올 수 있다”고 주장

○ **北…‘南민간인 사망, 사실이라면 유감’(11/2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논평을 통해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밝힘.



- ‘군사적 충돌을 초래한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처럼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그 책임은 이번 도발을 준비하면서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안에 민간인들을 배치하여 ‘인간방패’를 형성한 적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주장
- 논평은 또 “사건 당시 적측의 포탄들은 우리의 포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민가 주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날아와 떨어졌다”고 주장
- 이어 28일부터 서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남조선 괴뢰들을 사육하여 연평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그것을 기화로 지금까지 세번씩이나 발표했다가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핵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을 기어코 성사시켜 보려고 미리부터 획책했던 것”이라면서 “미국이 끝끝내 항공모함을 조선 서해에 진입시키는 경우 그 후과(나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
- 이와 함께 “조선반도에서 60년이 되어 오도록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주기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지배전략에 따른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기인된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종식되지 않는한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이 깃들 수 없다”고 덧붙임.

○ 北신문, 연일 위협…‘침범시 무자비한 타격’(1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서해상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28일 “우리 조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도발책동에 대해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 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남조선 통치배들과 그 비호세력은 정세를 일촉즉발의 상태로 몰아가는 일체 군사적 도발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노동신문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만약 그들이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또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의 보다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

● 北, 작년에 이어 ‘통일백서’ 또 비난(11/23,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최근 발간된 정부의 ‘통일백서’를 또 비난
- 남정부는 1991년 이후 매년 통일백서를 발간해 왔지만 북한이 비난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 민주조선은 ‘여론을 오도하는 정치협잡문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2010 통일백서’를 “통일의 간판을 단 분열백서, 대결백서”로 규정하고 “민심에 역행해 ‘북핵 폐기’니, ‘북의 태도변화’니 하는 것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동족대결 전쟁 책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속심(속셈)을 드러냈다”고 주장
-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통일백서에 대해 “남조선 집권보수패당의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적들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함.

● **개성공단, 우려 속 평온한 분위기(11/25, 연합뉴스)**

-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이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온한 분위기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지난 24일부터 우리(남)측 입주기업 관계자의 방북과 원·부자재의 공급이 끊기면서 야간 연장근무를 중단하는 업체가 속출함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북측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짐.
-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측 근로자들도 이번 사건의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도 “작업은 아무런 이상 없이 조용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다만, 연장근무와 원·부자재 공급 등의 중단에 대해 ‘남측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북측 근로자도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안 좋아져 그렇다”고 말해주면 걱정스런 표정이 역력하다고 말함.
-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개성공단 내 직원들을 통해 평온하게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북측 근로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얘기를 꺼내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함.
- 그는 “예민한 문제는 남북 근로자 모두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야간 연장근무를 중단하는 기업이 늘면서 표정이 어두운 북측 직원이 많아졌다고 한다”고 전함.
- 이어 그는 “북측 근로자들은 야간 연장근무를 안 하면 초코파이 2개를 추가로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간근무시 지급받은 초코파이 2개만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내색은 안 하지만 이런 상황도 북측 근로자들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개성공단 내에는 우리 국민 702명이 체류 중이며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한 지난 23일부터 정부의 신변안전강화 조치에 따라 공단 내 우리(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야간통행이 금지되고 있음.

● **北매체, 한·미연합훈련에 ‘무자비한 불벼락’(11/27,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8일부터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북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 할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도발자들의 선불질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



- 다”고 비난 (11/25, 평방)
- 우리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와 불법사찰문제 등 與野 ‘대치양상’ 傳言 및 “現보수당국 책임”이라고 선동(11/25, 평방)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靑 “6자회담 재개 논의할 때 아니다”(11/28)

- 청와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6자 회담 재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담에서) 6자 회담과 관련해 중국 측의 언급이 있었으나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 외교부가 연평도 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 협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은 외교통상부에서 일원화해 발표하기로 했음.

● 日 “中 6자긴급협의 제의 신중 접근”(11/28)

- 일본 정부는 28일 중국이 다음달 초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 협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 한국 및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후쿠야마 테쓰로(福山哲郎) 관방 부장관(차관)은 이날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 및 미국과 협조하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전했다.
- 앞서 우 특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타당한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9.19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12월 상순에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단장(수석대표) 긴급협상을 해 현재 각측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안했음.

● 中 “6자회담대표 긴급협의 내달초 갖자”(11/28)

- 중국이 다음달 초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협의를 제안했음.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8일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음.
- 우 특별대표는 “중국은 타당한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9.19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12월 상순에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단장(수석대표) 긴급 협상을 해 현재 각측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고 건의한다”고 밝혔음.



- 그는 “오늘날 한반도 형세에 복잡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6자회담 구성국들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6자회담 단장들이 이 중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동북 긴장 국면 완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이어 “6자회담은 각측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음.
-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 협의가 6자회담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아울러 우 특별대표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다이 국무위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2시간15분이라는 오랜 시간 회담을 가졌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한국은 유관국들이 진지하게 대화와 접촉을 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 한미 서해 연합군사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열린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평소 외교부 정례 브리핑 때보다 훨씬 많은 200여명의 내.외신 취재진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심지어 기자회견 주제와 발표자가 누구인지도 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 특별대표가 브리핑장에 입장하자 6자회담과 관련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자석이 잠시 술렁이기도 했음.

● “미-중, 6자회담 재개에 의견 상충”(11/24)

-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은 연평도 도발 국면에서 6자회담 재개에 의견이 맞서고 있음.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외중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조속한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입장임.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4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에 앞서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을 호소하면서 “북한은 이웃국가에 대한 호전적이고 무책임한 공격을 중단하고 정전협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음.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앞서 22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나서는 외중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음.
- 그는 방중 일정을 마친 뒤 성명에서 “국제사회 성원들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취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구했음.
- 이처럼 미국은 ‘도발하는 상대와 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반해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론적인 목표와 함께 6자



회담 재개를 누차 강조하고 있음.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지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 시급한 것은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은 조속한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논리임.

● 보즈워스 “美, 北포격행위 규탄”(11/24)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4일 “미국은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한국-일본-중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에 앞서 숙소인 베이징(北京) 웨스틴 호텔에서 “국제사회 성원들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취해줘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은 이웃국가에 대한 호전적이고 무책임한 공격을 중단하고 정전협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은 한국 방어 약속을 굳건히 지지하며 동북아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23일 오후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연평도 포격사건을 위기로 간주하고 싶지 않다”며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은 물리적 충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했으며 각 측이 자제를 발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우리늄 농축시설과 관련해서도 “중국 측과 유용한 대화를 나눴고 다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조화와 협의를 지속해간다는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웨스틴 호텔에서 준비한 대북 성명만을 짧게 읽고 나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항으로 향해 귀국길에 올랐다.

● 中 “6자회담 재개조건 조성 공동 노력해야”(11/23)

- 중국 외교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국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회담을 했으며 쌍방은 모두 유관 당사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데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겼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북한의 우리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공개 파문 속에서 열린 한중 회담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위성락, 中에 北우라늄농축 우려 전달”(11/23)

- 북핵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에서 북한의 원심분리기 공개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3일 밝혔음
- 이 당국자는 “위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 회담에서 최근 공개된 영변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한중 양측은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 韓-中, 北우라늄 농축문제 의견교환(11/23)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2일 만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의 심각성과 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한국의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오후 외교부를 방문해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다”고 23일 확인했음. 우리측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인 조현동 외교부 북핵기획단장이 배석했음.
-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중국측에 북한이 최근 방북했던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등을 통해 공개한 ‘현대식 우라늄 농축설비’와 그에 따른 고농축우라늄 생산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측이 이와 관련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서울과 도쿄를 방문한데 이어 이날 오후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대표와 회담할 예정임. 미국측은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참여시키는 ‘5자협의’의 틀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풀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중국이 이에 동참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날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한-미-일 3국이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중단을 내걸고 이를 북한과 중국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음.

● 미.일 북핵 논의..日외상 “우려할만한 사태”(11/22)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22일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 “사실이



라면 매우 우려할만한 사태다”라고 밝혔다. 마에하라 외상은 이날 오후 외무성에서 방일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하고 나서 기자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음.

- 그는 또 지난해 5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나온 점을 거론하며 “유엔 결의의 내용과 정신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북한의 행동을 비난한 뒤 “냉정하게 대응하고, 일·미·한 3개국의 연계를 강화하고, 밀접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마에하라 외상과 회담에서 “이번 일은 위기가 아니고, 대개 예견된 것”이라며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NHK 방송이 전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마에하라 외상을 만나기 전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최근 북핵 정세를 협의했음.

● “우라늄농축 중단도 북한 先비핵화조치 포함”(11/22)

- 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취해야할 비핵화 선행조치의 하나로서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조치를 주로 거론해왔음.
- 정부 핵심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은 한반도 비핵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취해야할 조치에 우라늄 농축 중단도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18일 회동해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본부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될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선행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정부는 앞으로 5자 협의를 거쳐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취해야할 비핵화 선행조치의 리스트를 마련, 북한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인 1874호 위반이라는 점에서 안보리에 이를 보고하고 관련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임. 정부 관계자는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성락 “北우라늄농축, 심각한 우려 대상”(11/22)

-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북한의 원심분리기 설치와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처와 협의를 해가겠다”고 밝



혔음. 위 본부장은 한중 협의차 이날 오후 2시40분께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해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 위 본부장은 “중국 측과 북한 핵문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중국과 처음 대화하는 자리”라고 답했다.
- 위 본부장은 천안함 사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협의를 해 봐야 할 문제로 미리 대답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일정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는 이날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만찬 회동을 갖는 등 1박2일 동안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 해법과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美전문가 “北 농축시설 보고 잠시 정신 나갔었다”(11/22)

-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과 함께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을 견학한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설비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의 앞선 우라늄 농축시설은 경제 제재를 근간으로 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았으면서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북한 담당관을 지낸 칼린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각)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창가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여러 줄로 늘어선 원심 분리기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 칼린 연구원은 “북한은 그것(원심분리기)이 2천 개라고 했다. 실제로 그 수가 많았다”면서 영변의 원심분리 시설이 자신을 포함한 핵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 그는 “내가 아는 어떤 전문가도 북한이 이렇게 많은 원심 분리기를 구축했을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 우리는 모두 (북한의 농축 시설이) 초보 단계일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잠시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칼린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농축시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놀랐다”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 제하의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도 “미국은 시간과 주변 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요구에 순응하기를 기다렸으나,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을 구축해왔다”고 논평했다.



- 그는 이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으로 북한과의 지난 16년간 관계에 관한 철저한 재검토,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선택 사항에 대한 정직한 평가 등을 제시했음.
- 또 칼린 연구원은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이 오히려 관계강화에 몰두하면서 시간이 지날 수록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음. 더욱이 이해가 중첩되는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게 그의 판단임. 따라서 이제 북한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권국가로서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인식하에서 대북 정책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칼린 연구원은 주장했음.

● 한미, ‘北 우라늄농축 공동대처..“심각한 도발”(11/22)

- 한.미 양국은 22일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파문에 대해 5자 공조의 틀 속에서 공동 대처하기로 했음.
-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 우라늄 농축 파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주도의 5자 협의과정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전 김성환 외교장관을 예방한 뒤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원심분리기 공개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대처해온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매우 실망스러우며 심각한 일련의 도발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양자와 다자접촉을 통해 많은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관여정책을 써왔다”며 “이번 일로 인해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포용(engagement)을 위한 포용'이나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를 믿지 않는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선 “예측하지 않겠다”면서도 “6자회담의 어떤 과정도 결코 끝났다고 선언되지 않았고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생시킬(resuscitate)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과 관련해선 “나는 우리가 미래에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예단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음.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사실로 이해한다”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심각한 문제의 대상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9.19 공동성명까지 기존에 우리가 북한에 해 준 합의나 결의에 위배된다”며 “한.미.일 포함해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5조 공조하에 단합된 입장에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향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기존 정책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대화과 제재의 투트랙 접근 등 저희가 해오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 기존의 5자공조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보면 대화재개의 여건을 조성해야만 대화가 생산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날 오전 한.미간 협의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 정책, 다시말해 대화과 제재의 투트랙 정책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하다는 입장을 지속해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추가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제재를 한다, 안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북한 원심분리기 설비와 기술수준에 대한 대한 평가와 관련해 “그것은 아직 충분히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우라늄 농축은 우리가 오랫동안 주시해왔고 또 의구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상황이라거나 저희가 알지 못했던 놀랄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염려해왔던 것이 현재화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은 비핵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며 비핵화를 지연시키고 막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바른 조건이 조성된 하에서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런 행동은 나쁜 행동이어서 용인해서는 안되고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대화 자체를 포기하거나 여건조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앞으로 외교적 방법 외에 제재와 압박도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제재를 한다, 안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나. 미·북 관계

● 오바마 “北 연평도발은 현재진행형 위협”(11/2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행위는 반드시 대처해야 할 ‘현재 진행형’ 위협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ABC방송을 통해 방영된 바버라 월터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연평도발)은 지난 수 개월간 우리가 지켜봐 왔던 일련의 도발 가운데 또 다른 하나”라면서 “우리는 이번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는 동시에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결집시켰다”고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역내에 있는 모든 당사국들이 이번 도발이 반드시 대처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 위협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었다”며 “그런 동맹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강력히 다짐한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평 도발과 관련해 전투함을 파견하거나 미군에 경계태세를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군사적 행동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면서 “우리는 이전에도 중국과 소통을 했듯이 앞으로도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은 북한이 준수해야 할 국제적 규범을 세울 것임을 북한 측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美국무부 “동맹국들과 일치된 대응책 강구”(11/24)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포격 도발과 관련,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해 “주도면밀하면서도 일치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뉴스브리핑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망연자실한 상태”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틀내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국의 군인과 민간인을 향한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군사적 공격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매우 나쁘고 도발적이며 호전적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포격과 앞서 공개된 우라늄 농축시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음.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에 관한 질문에 그는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토너 부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 영변 핵 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직접 목격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과 이날 오전 면담을 갖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 “北도발 ‘정치적 공격’으로 대응해야” <美전문가>(11/24)

-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무력 도발은 북한 내부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겐 군사 공격보다는 ‘정치적 공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다.
-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대북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는 23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군사 도발의 주된 목적은 늘 내부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번의 잇단 도발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 베넷 박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올해 두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지만 기대만큼 경제적 지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따라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의 공개로 핵위협을 고조시키고 연평도 도발로 단기적인 군사위협을 가중시켜 그동안 ‘전략적 인내’ 방침을 고수해온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려 한다고 풀이했다.
- 그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위험이 있지만 북한 정권은 그것을 바라고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이 제한적이거나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 지도부는 내부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외부의 위협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임.
- 베넷 박사는 한국이 북한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면 북한의 엘리트들을 북한 정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김정은에게 권력이 세습되는 과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 그는 북한 정권이 탈북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근 북중 접경지역의 군 고위 간부들을 숙청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김정은의 후계 세습을 위해 군 원로들을 숙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숙청에 따른 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을 일으켜 군이 외부의 적에 집중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협상이나 군사공격, 경제제재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이자 장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격(political attacks)”이 돼야 한다고 베넷 박사는 강조했다.



-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탄 공격이 북한이 내부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자행한 것이며, 그런 불안은 북한 정권이 수년 내에 붕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한미 양국이 유사시 북한에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베넷 박사는 “이러한 ‘정치적 공격’은 경제제재나 군사공격보다 북한정권에 10배나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 <美전문가 5인, 北 연평 도발 진단>(11/24)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해안포 공격 도발은 또 한번 북한의 호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이어 한국의 재래식 역지력을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제기됐음.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정책실장 = 이번 포격은 전형적인 북한의 행동 가운데 하나임. 제한적인 군사행동은 정치적으로 도발적인 것인 동시에 상대방(한국, 미국 등)으로 하여금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이 재래식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결국 이런 행동은 대화가 재개될 때 좀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실력과시용’ 일 수 있음. 하지만 때로는 이런 행동이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임.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 북한이 서해에서 남한을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발생한 해안포 공격은 서해에서의 ‘주권’을 주장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목적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를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압박전략을 포기시키기 위해 긴장고조 전략을 강화했다는 점임. 백악관은 북한의 이런 전략에 굴복해서는 안됨.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회담재개 요구를 적절히 거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함.
-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 북한의 이번 연평 도발은 천안함 사태의 나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봄.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런 주저없이 도발을 감행한 측면이 있음. 문제는 북한이 천안함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재래식 역지력을 겨냥해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임. 이것은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함.
-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앞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해 도발을 감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임. 이렇게 되면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



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음. 이번 사건을 놓고 남북한 가운데 누가 먼저 ‘도발’을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개연성은 있지만, 백주에 주민이 살고 있는 한국 영토에 대해 포격을 가한 북한의 행동은 논란의 여지없는 도발임.

- ▲에이브러햄 덴마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 = 북한의 연평 도발은 북한 정권의 호전성과 불안정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임. 한국의 대응은 책임있고, 절제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을 만함.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해야 함.
-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갈 것인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이 결정할 일임. 북한을 좀 더 고통스럽게 하고, 특정한 분야를 겨냥한 제재가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안보리가 이를 채택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임. 진정한 문제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이 천안함 문제를 잘 못 다루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음. 이제 역내 국가들의 관심은 중국 정부가 이번 도발의 책임을 북한에 묻는지에 쏠리게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은 대응수위를 가다듬고 있음.
- 중국은 “각측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더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내놨는데, 앞으로 수 일내에 좀 더 직접적이고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함.
-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FPIP) 소장 = 연평도에서 교전이 있었던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임. 물론 북한은 주민이 살고 있는 연평도를 포격해서는 안됐음. 불행하게도 이번 사건은 북핵 협상 재개가능성을 뒷걸음치게 할 것으로 보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여하는 한 대화는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음. 중국은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이 6자회담을 조만간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음.
- 이번 사건으로 대북 추가 제재를 하는 일은 가능할 수도 있음. 하지만 그것이 유용할지는 모르겠음. 과거 제재가 있었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개발을 막지 못했기 때문임.

● 美 “北 나쁜 행동에 보상 않겠다”(11/23)

- 미국은 22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 스스로가 한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며,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나쁜 행동에 대해 북한을 보상하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자주 충격적이거



나 도발적인 어떤 것을 하면서 선수를 치고, 그 결과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도록 해왔다”면서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런 입장은 아시아에 급파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국, 일본 방문이 이뤄진 직후 나온 것으로, 북한의 ‘우라늄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임.
- 크롤리 차관보는 “보즈워스 대표가 밝혔듯이 이번 건은 명백히 우려이긴 하지만 위기는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파트너들과 북한의 행동에 일치된 대응을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이(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확실히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가져 왔으며, 이번 정보가 의미하는 것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파트너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에 대한 평가를 추후에 내릴 것이라면서 이날 단정적 평가는 내리지 않았음.
- 크롤리 차관보는 또 “우리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건은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그는 “북한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향후에도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음.
- 그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채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음. 또 향후 북미 직접접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단기적이고 장기적 정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후 한미간에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건의 결과로 우리 군의 태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 美 공화중진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11/22)

- 미국 차기 의회의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일레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생산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도된 후 2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음.
- 현재 하원 외교위의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에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북한의 진정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전세계를 상대로 시간을 벌면서 은밀히 핵무기 개발계획을 진행시켜왔다”고 지적했음.

-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 체제에 다가서려는 미 행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실패했으며, 북한의 핵개발 능력 확장을 막고자 한다면 이제 강경 대응에 나설 때”라고 강조하고 첫번째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로스-레티넨 의원은 2년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심각한 실수였다면서 이제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체제가 권력을 유지하고 호전적인 정책을 계속 펴 나가는데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바탕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폐기를 압박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 중·북 관계

● 中왕자루이, 조만간 방북할듯(11/28)

- 중국이 북한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조만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8일 “중국이 북한에 왕 대외연락부장을 보내 우라늄 농축 위협에 이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이미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항모참가 서해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중국은 이미 27일 다이빙궈(戴炳國) 국무위원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토록 한 점으로 미뤄 왕 대외연락부장도 비슷한 자격을 부여해 방북토록 할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다이 국무위원이 방한 첫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한데 이어 둘째날인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2시간여 면담한 점으로 미뤄, 중국은 왕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하게 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일각에서는 왕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북한의 노동당과 내각의 외교채널 면담에 이어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새 지도부와의 회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왕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시기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29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다이 국무위원은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 신화통신은 아울러 면담을 통해 양측이 현재 한반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관 각측이 신중한 접촉과 대화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공동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 베이징의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국면 타개를 위해 남북한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하면서, 그와는 다른 뉘앙스의 ‘압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미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났는데 이어 한국-미국-일본-러시아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 회담을 갖고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반도가 우려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협조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행보에 나서고 있음.

● 北최태복, 30일 中 공식방문(11/28)

-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 긴장이 격화된 속에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30일부터 중국을 전격 방문함. 최 비서는 우리나라 농축용 원심분리기 공개 파문과 뒤이은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첫 북한 고위급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됨.
-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최 의장 겸 비서가 우방귀(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정식 우호 방문한다고 보도했음. 그러나 통신은 최 의장의 방중 목적과 구체적인 일정 등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음.
- 비록 이번에는 우리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격으로 공식 방중을 하는 것이지만 그가 당 비서를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우리나라 농축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됨.
- 최 비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 등을 새 지도부로 선출한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직후인 9월 30일에도 중국을 방문해 대표자회 결과를 설명하는 등 최근 북한과 중국의 당 대 당 외교의 전면에서 나서고 있는 인물임.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긴급히 불러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추가적인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과 중국 사이의 본격적인 논의는 최 비서의 방중을 계기로 비로소 이뤄질 것으로 예측됨.

● “中, 北中 변경지역 경계태세 강화”(11/27)

-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북중 접경지역에 배치된 중국군의 경계태세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국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중국군 선양군구(瀋陽軍區)가 연평도 사태 직



후 지린(吉林)과 랴오닝(遼寧) 일대 북중 접경지역 예하부대에 비상 경계태세를 발령했음. 이에 따라 북한 접경인 단둥(丹東)과 투먼(圖們), 통화(通化) 일대 군부대가 24시간 비상 대기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소식통은 “군인들이 군복을 입은 채 취침하는 등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군 고위 간부가 접경지역을 긴급 시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소식통은 비상 경계태세 발령 이유에 대해 “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 간의 첨예한 대치로 북한 내부가 혼란에 빠지거나 불안정해지면서 동요하는 주민들이 대거 탈북하는 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군사훈련 등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소식통은 “오는 28일 서해(중국명 黃海)에서 시작되는 한미 군사훈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지난 26일 연평도 포격 이후 중국 관영 매체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중국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
- 북한도 연평도 사태 직후 신의주 등 중국 접경지역 국경수비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외견상으로 특별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양제츠, 北주중대사 면담..한반도문제 논의(11/26)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처음으로 지재룡(池在龍) 주중 북한대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외교부장은 이날 지 대사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한국과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 외교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음.
- 양 외교부장은 남북한 및 미국의 주중대사와 한반도 상황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 中환구시보, 연평포격 관련 北비난(11/26)

- 중국의 환구시보가 26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행위를 꾸짖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음. 이 신문은 이날 ‘한반도의 정치적 인내의 줄이 끊어질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은 사실상 독약을 마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음.
- 사설은 “연평도에서의 남북한 포격 사건발생후 한국은 매우 비통해하고 중국은 외교적인 어려움에 빠졌으며 미국과 일본은 분노하고 있는데 북한 만이 ‘기를 펴고 활개를 치고 있다(揚眉吐氣)’”면서 이 같이 지적했음.



- 환구시보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상업성이 강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 편들기에 주력해온 매체여서 주목됨.
- 사설은 “남북한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북한은 정권의 안정을, 한국은 남북 접경의 안정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미국은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의 안정적 유지를, 일본과 러시아는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음.
-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의 서로 다른 성향의 정권들간의 잦은 교체가 상호작용을 벌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다는 인식을 전했음.
- 사설은 그러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우선 남북한 간에 신뢰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북한-중국-러시아 간에도 신뢰는 낮으며, 한국-미국-일본 간 신뢰도 높지 않다”며 “특히 한미 양국은 동맹관계에 있지만 한반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볼 때 이익이 중복되는 부분이 차이나는 부분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했음.
- 사설은 그런 탓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지금까지처럼 교착국면에 와 있으며 정치적 이해를 일치시키기가 쉽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음.
- 사설은 그러면서 현재의 북핵 교착국면을 돌파하려면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특히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크게 손실을 입을 것이어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음.
- 사설은 특히 “이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가장 힘든 나라는 남북한이 될 것”이라며 “남한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이고 북한은 더 소외받고 궁핍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사설은 이와함께 “현재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남한이 전략적 조정을 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크고 조정을 하게 되면 전략적 이익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北김정일, 연평도 공격후 ‘북-중우호’ 과시>(11/26)

-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25전쟁때 전사한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의 묘에 화환을 보내고 중국 지원으로 건설된 공장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과시, 눈길을 끄.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마오안잉의 전사(11.25) 60주기를 맞아 그의 묘에 화환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군의 6.25참전 기념일(10.24)에 맞춰 김 위원장이 그의 묘에 화환을 보낸 적은 있지만, 전사일에 헌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임. 더욱이 북한군의 총책임자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마오안잉의 묘까지 직접 찾아가 참배했음.

- 북한 조선중앙TV도 이날 밤 중국의 TV연속극인 ‘마오안잉’을 방송했으며 “오늘은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 주석의 아들 모안영 동지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60돌이 되는 날”이라고 소개했음.
- 따라서 이번 현화는 연평도 공격 이후 한국과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데다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믿을 곳은 중국뿐’이라는 북한 당국의 절박한 정세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6.25때 전사해 북중간 혈맹관계의 상징이 된 마오안잉을 내세움으로써 이번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에 중국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을 것이라는 얘기임.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마오안잉에 대한 김정일의 화환 전달은 기일을 맞아 북중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향후 처리과정에서 중국이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음.
- 앞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무상원조로 건설돼 2005년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북중협력의 상징’이 된 대안천선유리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같은 날 전하기도 했음. 이 공장은 중국 정부가 2천4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해 건설한 곳으로, 지난 2005년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당시 시찰하기도 했음.

● 北-中, 연평도 포격 속에도 ‘정상 교류’(11/24)

- 북중 양측이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정상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우리의 보건장관격인 중국 천주(陳竺) 위생부장은 24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최창식 보건상과 회담을 하고 북중간 보건 및 의학과학분야 협조협정을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천 부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하고 “앞으로 보건 및 의학과학분야에서 두 나라 정부사이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 24일 평양의 대동문영화관에서는 중국 TV연속극 ‘마오안잉’제작단에서 선물한 연속극 ‘마오안잉’에 대한 시사회가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마오안잉(毛岸英)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음. 이날 시사회에는 박춘남 국가영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춘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음.
- 중앙통신은 “시사회에서 발언자들은 이번 시사회가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爲國)의 기치높이 조선 전선에 달려나와 귀중한 청춘을 바친 마오안잉의 전사 60돌에 즈음해 진행돼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음.
- 같은 날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중국의 김일성종합대 졸업생 모교방문단이 대학 관계자들과 친선모임을 가졌음. 앞서 23일에는



북한측에서 구본태 무역성 부상, 중국측에서 왕허민(王和民)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경제, 무역,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6차회의를 열고 ‘경제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음.

● <中관영매체 ‘北도발 회의론’ 잇따라 제기>(11/24)

-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로만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농축 시설 공개 파문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언론 논조에 중국 정부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만일 이런 분위기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굳어진다면 천안함 사태 직후와 같이 중국이 사태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보류한 채 남북한에 자제와 대화만을 촉구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
- 관영 신화통신은 24일 오후 타전한 ‘한반도 긴장 고조 이후 자제가 요구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선제 도발이라는 한국의 입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음. 신화통신은 “비록 한국이 군사적 도발이라며 북한을 비난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가 포격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 신화통신은 이어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가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망치고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러시아, 유럽연합, 독일, 아르헨티나 등 많은 나라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고 전해 ‘양비론’적 시각을 부각시켰음.
- 이런 가운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1면 머리기사 제목을 ‘한국과 북한이 모두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주장한다’라고 뽑아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판단 보류’를 선언했음.
- 환구시보는 1면 전면 기사로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전하면서 북한의 선제 도발을 주장하는 한국과 남한군의 포격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는 북한의 주장을 균등한 분량으로 대비시켰음. 이 신문은 사실에서도 연평도 사태를 ‘포사격 교환’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공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실패를 입증한다”며 “한미간의 잇따른 군사훈련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이처럼 중국 언론의 논조가 연평도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남북한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는 양비론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날 오후 신화통신은 방미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자폐이신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부주임의 발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음.
- 자 위원은 이날 시카고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 참석해 긴장 완화는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한반도에 냉정과 자제가 요구된다고 강



조했음. 그는 한반도 핵 문제는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직접 접촉을 통해서만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보도에 주의하고 있으며 사태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음.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中관영매체 “남북한 交戰” 부각>(11/24)

- 중국 관영매체들이 24일 북한의 연평도 선행 포격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남북한 교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됨. 이런 시각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규탄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공동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음.
-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중국 매체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2명 사망 16명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전했다. 이튿날인 이날 오전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남북한이 서로 포격을 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제목을 바꿨음.
- 중국내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을 가장 먼저 전한 신화통신은 중문판과 영문판에서 처음에는 북한의 선행포격을 제목으로 뽑았다가 이날 “남북한, 서부해역서 교전발생”으로 고쳤음.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자사 인터넷사이트에 신화통신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면서, 외교부가 “중국 정부가 ‘한반도 포격사건’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제목을 뽑았음.
- 이날 영자지인 관영 차이나데일리 역시 “남북한 교전(Two Korea exchange fire)”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도했음.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이번 교전은 6.25 전쟁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가장 심각한 충돌이었으며 남한이 먼저 포격해 대응사격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음. 특히 조선중앙통신사가 강변한 연평도 사건의 개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음. 차이나데일리는 중국내의 지식인층과 외국인을 독자로 하는 신문임.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도 연평도 사건 발생일인 23일과는 달리 이날 인터넷사이트 머릿기사로 “남북한 상호 포격, 국제사회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바꿨다. 관영 CCTV는 자막에 “중국 외교부, 남북한 상호포격사건 관심표명”이라는 제목을 띄우고 사건을 보도했음.
-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강도높게 비난했던 홍콩 매체들의 분위기도 다소 변화됐음. 봉황망은 인터넷사이트에 “남북한, ‘분쟁’



도서에서 상호포격”이라는 제목을 뽑아, 연평도가 남북한에 분쟁이 있는 곳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음. 중국 청년보와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등의 일간신문들도 대부분 신화통신의 기사를 인용해 “남북한 교전”을 제목으로 뽑았음.

- 중국 매체들의 이런 보도 태도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후 같은 날 저녁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한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해 대응조치로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그간 중국 매체가 보여온 상습적인 ‘남북간 기계적 균형’ 보도 태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북한 역시 자기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연평도 부근에서 남한이 먼저 포격훈련을 해 이에 대응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비중있게 보도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남북한간 ‘국지전(局地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옴.
- 실제 이번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6.25 전쟁이후 가장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지만 유엔 입장에서 보면 국지전 성격을 띠고 있는 탓에 “지역분쟁은 당사국간 우선 해결”이라는 유엔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간 대화와 해결 노력이 선행토록 할 공산이 커 보이며 중국도 이를 겨냥해 자국내 ‘여론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임.

라. 일·북 관계

● 日의회, 北비난 결의안 채택(11/26)

-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이 26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 일본 의회는 이번 결의에서 북한이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에 “무차별적이고 충격적인 폭력 행위”를 가했다며 “일본은 민간인 피해까지 초래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음. 결의안에는 또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의 표현도 포함됐음.
- 북한에는 도발 행위와 핵 야욕을 포기하고 해묵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한국에 완전한 지지를 보내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국 및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음.
-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결의안 채택 후 본회의에서 “우리는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한.미 등 관련 국가와 협력해 유엔 등의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이 초래한 위기를) 단호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음.



● <‘대북 독자제재’ 호언 日 “남은 카드가 없네”>(11/24)

- “할만한 건 거의 다 해버려서 더 할 게 없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소식에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를 언급하는 등 강경 자세를 보였던 일본이 하루만인 24일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임.
-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이날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할 수 있는 제재는 거의 다 해버렸다”고 말했다.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침몰 사태 당시 대북 수출입을 전면 중단한 것은 물론, 대북송금 보고의무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대부분 해버렸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뜻임.
- 일본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조총련계 고교에 대한 수업료 지원 시기를 미루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대북 제재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음. 독자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일본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음.
-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은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일본 혼자서 예단을 갖고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한국이나 미국과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이 북한의 포격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가면 이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당분간 6자 회담 재개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했음.
- 대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음. 마에하라 외상은 24일 오후 외무성으로 청용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만큼 역할도 중요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 대사는 마에하라 외상을 만난 직후 기자단에 “사태가 이 이상 악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원칙적인 답변과 함께 “사실 관계를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자 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 日, 조총련계 고교 수업료 지원 미루기로(11/24)

-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일본 문부과학상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조총련계 고교(조선학교)의 수업료 지원을 더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다카키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측이 아직 수업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심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북한의 포격이) 주게 될 영향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수업료 지원 문제를 외교상 배려와 무관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 점을 고려하면서도 중대한 판단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내가 다카키 문부과학상에게 ‘이런 상황에서 프로세스(절차)를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이달 말까지 조선학교의 수업료 지원 신청을 받은 뒤 당분간 심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은 지난 5일 조선학교에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일본 전역의 9개 조총련계 고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해 이르면 내달 중에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미루기로 한 것임.
-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조선학교를 제외한 다른 고교에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日 간 총리 “北 용인하기 어려운 만행”(11/24)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이 용인하기 어려운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설치한 대책본부를 찾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용인하기 어려운 만행으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대해서도 함께 북한을 억제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그는 이날 아침 소집된 각료회의에서도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을 비난하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국민생활의 안전, 안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앞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23일 밤 9시30분께 긴급 관계 각료회의가 끝난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위를) 용인하기 어렵다. 강력히 비난한다. 공격행위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 센고쿠 장관은 같은 날 오후 7시10분께 북한의 도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총리관저를 찾은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에게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음.
- 한편 간 총리는 24일중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음.

● 日신문 사설 “北 민가 포격 용서못할 만행”(11/24)

- 일본의 주요 신문은 24일 일제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한 사설을 신고 민가까지 포격한 만행을 규탄했음.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폭격을 강력히 비난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민간이 살고 있는 섬을 갑자기 포격한 것은 중대한 무력 도발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음.
- 이 신문은 “전쟁의 재발로 연결될 수 있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폭거이자 휴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적었음. 이 신문은 또 “북한은 성명에서 한국군이 북한 영해 내에 포격을 했기 때문에 ‘단호한 군사적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북한이 어떤 이유를 둘러대도 민간인을 겨냥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신문은 그러나 “보복을 요구



- 하는 목소리가 높더라도 한국은 현 단계에서 강력한 자제심을 발휘해 냉정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음.
-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북한의 도발은) 상귀를 벗어난 폭거”라고 규정하고 “1천6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고 있는 섬에 대한 포격은 명백한 휴전협정의 위반이자 군사적 도발로 인도(人道)에 반(反)하는 행위만큼 한국군의 응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음.
 -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충돌 확대 방지를 지시하고 주한 미군도 즉응 태세를 취하고 있어 극도의 상황악화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도 북한에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이 신문은 “이번 사태가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바심 때문인지, 후계자의 업적쌓기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우선 일본, 미국, 한국이 빈틈없이 공조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아사히신문 역시 사설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상귀를 벗어난 북한의 군사행동”이라고 전제하고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공조해 대응을 서둘러야 하며 우선 중요한 것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신문은 “북한은 올해 건강이 불안한 독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선택됐다”면서 “만약 이번 포격이 후계체제의 기반을 공고히하고 3남에게 권위를 붙여주기 위한 군부의 ‘충성 경쟁’의 결과라면 매우 독선적이고 위험한 발생”이라고 지적했음.
 - 이 신문은 “한국이 인적 피해를 당한 입장이지만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억제적 자세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강력한 태도로 북한의 비이성적 행위를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일본 “북한 추가 독자제재 검토”(11/23)

-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이날 관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 것이다”라며 “기본은 일·한(한·일), 일·미(미·일)의 연계다. 각국의 대응을 보면서 (제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음.
- 북한의 포격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사건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표명했고, 6자회담 재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커다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냉정한 대응을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음. 센고쿠 장관은 이날 밤 총리관저에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와 만난 점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사태가 더 발전. 확대될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



스의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고, “현 시점에서 일본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사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주재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음. 간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한·미 양국과의 긴밀한 연계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관계 각료회의에는 간 총리와 센고쿠 관방장관 외에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 등이 참석했고, 외무성에서는 외국 출장 중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 대신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부대신이 출석했음.

● 일본, 연평 도발에 신중…북한에 몸사리기?(11/23)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 공격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후 연평도에서 북한의 포격이 시작된 이후 3시 15분께부터 방송 등 언론의 실시간 보도로 연평도가 포격을 받아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태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지만 북한에 대한 비난 발언을 내놓지 않다가 오후 10시 가까이 돼서야 관방장관 명의의 비판이 나왔음.
-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주재의 관계 각료회의가 끝난 이날 밤 9시50분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위를) 용인하기 어렵다. 강력히 비난한다. 이런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즉각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러시아까지 나서 북한의 공격을 비난한 지 한참 지난 뒤의 반응이었음.
- 일본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을 비난해 굵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음. 일본은 전역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점에 민감해 하고 있음.
- 간 총리는 이날 휴식을 취하다 언론을 통해 먼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뉴스를 접한 뒤 오후 3시30분께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오후 4시45분께 총리실에 출근해 센고쿠 관방장관 등과 대응 방안을 협의했음.
- 간 총리의 일성은 정보수집과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하라는 것이었음. 그는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에게 정보 수집과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만전을 기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오후 3시20분 총리관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음.
- 일본 정치권도 사태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고 북한의 도발 배경을 분석하느라 분주했음.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사



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한국과 북한)의 냉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확전을 경계했음.

-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조회장은 “정부가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모든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하고 북한의 도발 배경에 대해서는 “정권, 지도자가 바뀌는 시기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한 것이다”고 분석했음.
-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정부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한국이 긴박한 국제정세와 대면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미국, 한국이 결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마. 기 타

● 러 외교, 연평도 포격 북한 제차 비난(11/25)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음.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역이라 할지라도 이 해역에서 (남한이) 사격 훈련을 하는 것과 주민들의 거주 지역인 육지에 (북한이) 포격을 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 남한이 서해 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먼저 도발을 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인명 피해를 낸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비난한 것임.
- 라브로프 장관은 “연평도 사건에 앞서 북한이 남한에 군사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그럼에도 훈련은 실시됐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명백히 불필요한 긴장 고조 행위(남한의 훈련) 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남한의 인명 피해)”라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양자 관계의 발전과 지역 협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와 (남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음.
- 장관은 이어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사태 악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을 기대하며 이것이 상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당사자들은 책임을 의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도발, 러 극동 안보에도 우려 제기”(11/24)

-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러시아 극동 지역 안보에도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마르겔로프가 23일 밝혔다.
- 마르겔로프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리아노 보스티 통신과 한 회견에서 “러시아는 자국 국경 인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크다”며 “핵무기 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나라(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이 한반도와 극동 지역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이번 사건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이 중단된 결과 형성된 상황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만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남한에서 추정하듯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적절치 못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 마르겔로프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는 타협점을 찾고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며 “이 협상의 틀 안에서 동북아의 이해와 연결된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에 관한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세계 각국, 北연평 도발 일제히 비난(11/24)

-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규탄 목소리가 이틀째 확산하는 가운데 유엔을 중심으로 각국의 공동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음. 미국 백악관은 23일(미국시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관계국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임.
-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도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잇단 도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이날 새벽 백악관은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번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에 호전적인 행위의 중단과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한국전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의 공격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반 총장은 이어 “이번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면서 “어떤 차이도 평화적인 수단과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이번달 순회 의장국인 영국의 마크 라이얼 그랜트 유엔대사는 이날 “북한 공격의 심각성에 비해 긴급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트 대사는 이날 반 총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반 총장이 “상



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유엔의 한 외교관이 전했다.

- 이에 대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 대사는 로이터 통신에 이 문제는 남북한 간에 논의될 사안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남북한간의 지역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은 한반도 주변국과 유럽에 이어 미주 등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음. 스티븐 하퍼 캐나다 연방총리는 이날 북한의 이번 공격을 “국제안보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이 최근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중 하나”라고 비판했음.
- 하퍼 총리는 이어 캐나다는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국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에 대해서는 무모하고, 호전적인 행동들을 더 이상 자행하지 말고, 한국전 종료 후 체결된 정전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음.
-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 주 히베이라우 프레토 시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뒤 “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것이 브라질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음.
- 룰라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관해 브라질 외무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내 말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일체의 공격 시도에 대한 비난”이라고 강조했다. 중남미의 멕시코와 파라과이도 각각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강력히 비난했음.
- 앞서 중국의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23일(이하 현지시간) “현재의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 유관 보도에 주의하고 있으며 사태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관련 질문에 대해 “이후 유관 상황이 사실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관 각 측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더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원칙론적 답변을 내놓았음.
- 일본의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위를) 용인하기 어렵다. 강력히 비난한다. 이런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사건 발생 6시간여 만에 나온 것으로 매우 신중한 태도로 풀이됐음.
-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포격을 주도한 자들은 분명히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했음.
- 유럽연합(EU)의 캐서린 애슈턴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이하 외교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포격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북한 당국



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어떠한 추가 행위도 자제하고 정전협정을 충실히 존중하라”고 촉구했음.

- 이밖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정당한 이유없는 도발을 강력 규탄했고, 호주의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북한의 공격은 위험한 도발행위로, 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호주는 북한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더 이상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리 외교장관 “연평도 포격 비난 받아 마땅”(11/23)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강하게 비난하고 남북한 양측이 즉각 교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음.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남북한의 섬(연평도)에 대한 포격을 주도한 자들은 분명히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관은 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양측의 포 사격 교환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는 “올해 초 이후 유사한 사건이 벌써 세 차례나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는 상황이 무력을 통한 해결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지 말 것을 남북 양측에 호소해 왔다”고 밝혔음.
- 장관은 이어 “우리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 한편 러시아 외교부도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가 간의 어떠한 무력 사용도 강하게 비난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23일 서해에서 발생해 인명 피해를 낸 남북한 간 포 사격 사건에 관한 보도를 깊은 우려를 갖고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명은 그러나 무력 사용의 주체를 북한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음.
- 성명은 이어 “우리의 입장은 모든 분쟁은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정치·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남북한 양측이 인내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반도 내 군사적 대결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음.
- 이에 앞서 외교부의 또 다른 소식통도 이타르타스 통신에 “6자회담 재개에 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이 더이상 악화하지 않고 일회적이며 지역적인 일로 끝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리아노보스티와 인테르팍스 통신도 “이번 사건이 한반도 상황의 악화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견해를 전했다.



- 한편 러시아 언론매체들은 이날 오후 서해 상에서 벌어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신속히 보도한 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 외교 관계자들의 견해를 속보로 계속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한미연합훈련, 中겨냥한 것 아니다”(11/27)

- 미국 국방부는 26일 서해상에서 오는 28일부터 실시할 한미 연합훈련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다린 제임스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련의 이미 실시했던 훈련들과 같이 이번 훈련들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한반도 서쪽에서 이번 해군 훈련을 실시하는 우리의 의도를 중국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 한미, 내일 최고수준 연합훈련 돌입..北동향 주목(11/27)

- 한국과 미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에서 최고수준의 연합훈련을 실시함.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일련의 계획된 훈련으로, 항공기의 실무장 폭격과 해상사격 등 최대규모로 진행됨. 특히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보복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연합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를 비롯한 미사일 순양함 카우펜스함(CG62.9천600t급), 9천750t급 구축함 샤일로함, 스테담호(DDG63), 피체랄드함(DDG62) 등이 참가함. 핵잠수함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않음. 미측은 주일미군에 배치된 RC-135 정찰기와 최첨단 F-22 전투기(랩터)를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군은 첫 번째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과 4천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I)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할 계획임. 지난 2008년 12월 취역한 세종대왕함은 우리 해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으로서 SPY-1D(V)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Aegis) 전투체계를 탑재해 동시에 1천여개의 표적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고 그 중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음. 무장으로는 5인치 주포 1문과 근접방어무기체계인 골키퍼, 함대함, 함대공 등 120여기의 미사일과 장거리 대잠어뢰를 보유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27일 “서해상에서 실시되는 이번 연합훈련의 강도가 계획된 것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훈련에 참가하는 세력들이 실제 사격과 무장 폭격 훈련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훈련은 항모강습단 호송과 대공방어, 해상 자유공방전 등으로 진행된다”며 “해상 자유공방전은 적의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아군 함정을 공격하면 이를 조기 식별해 함재기 등을 동원해 격멸하는 전투훈련”이라고 설명했다.
- 다른 관계자는 “이번 연습은 방어적 성격으로 지난 23일 발생한 북한의 해안포 도발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이 훈련을 통해 억제력 강화와 역내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향상과 한미동맹의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지워싱턴호는 이번에 훈련할 지역에서 그동안 수차례 작전과 연습을 실시했다”며 “작년 10월 서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연합훈련에 참가했었다”고 강조했다.
- 한미는 훈련기간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로 유지하며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음. 미국 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훈련일정을 중국에 통보했으며, 한미연합사도 북한측에 훈련 일정을 통보했음.

● 김외교,美클린턴 장관과 ‘北대응’ 협의(11/25)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오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음.
- 클린턴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달했고 김 장관은 위로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모든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말했다.
- 또 두 장관은 이달 말 개최되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근 정세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 오바마 “한국지원 흔들림 없어”(11/2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외교안보팀 수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23일(현지시간) 소집해 한국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원을 약속했음.
-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州)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하자마자 백악관에서 진행 중인 외교안보팀 수뇌부 회의에 참석,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음.



-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국 외교안보팀 회의에는 톰 도널던 국가안보보좌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제임스 카트 라이트 합참 부의장,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미국 외교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들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시내각과 흡사함.

● 한미 국방장관 “北포격, 준비된 의도적 도발”(11/24)

-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된 의도적 도발”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이날 자정부터 2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현 사태에 대한 상황 평가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면서 그같이 평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 김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조치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양 장관은 또 “미국의 정보자산을 포함해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되,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며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美의회도 北규탄 동참..방위공약 확인>(11/24)

-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미국 의회는 23일 초당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없는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 미치 매크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왜 이런 새로운 호전적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 한국 국민이 의구심을 품을 수 있지만, 미국 국민과 미군이 한국 방위에 대한 헌신적인 동맹국으로서 있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는 한국 국민이 의심을 가지는는 안된다”고 확고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다.
- 그는 또 “일련의 긴 (북한의) 호전적 행동 중에서 가장 최근 일어난 슬픈 일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규탄한데 대해 동참한다”면서 “북한의 주변 국가들은 이번 공격을 규탄하는데 일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소속의 아이크 스킨 하원 군사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정전 협정에 대한 직접 위반”이라면서 북한을 규탄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스럽다”면서 “한국에 대해 포 공격을 가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데 대해 미



행정부와 함께 한다”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을 지지했음.

나. 한·중 관계

● **李대통령“中,공정.책임있는 자세가져야”(11/28)**

-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중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해달라”고 요청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시간여 동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일행을 면담하고 “최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인까지 공격한 것은 중대한 사태 변화”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 이 대통령은 또 “20세기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음.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정부는 6.25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 인내해 왔지만 이번에 북한이 추가도발해 온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이 국무위원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한국측 희생에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남북한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홍 수석은 “다이 국무위원은 이날 후 주석의 구두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할 이야기는 다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가 발생하자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연기하는 대신 한단계 격을 높여 다이 국무위원을 파견했음. 이날 이 대통령의 다이 국무위원 면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 류우익 주중대사,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중국측에서는 장신쥘 주한중국대사,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후정웨이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등이 배석했음.
- 이 대통령과 다이 국무위원은 면담 말미에 배석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잠시 독대했으며, 다이 국무위원은 독대를 통해 후 주석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한중 양국은 이 자리에서 경제 분야 협력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 **中 다이빙궈 전격 방한..金외교와 만찬협의(11/27)**

- 중국의 다이빙궈(戴炳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27일 전격 방한했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다이빙귀 국무위원의 방한은 중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외교적 함의를 시사해 향후 추이가 주목됨.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다이빙귀 국무위원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찬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다이빙귀 국무위원과 우다웨이 대표가 갑자기 방한했다”며 “김 장관은 만찬에서 최근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 이날 만찬은 오후 40분께부터 2시간 동안 이뤄졌고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정웨이(胡正躍) 외교부 부장조리가 배석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 중앙제츠, 한미 연합훈련에 우려입장 전달(11/26)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중국은 여러차례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양 부장은 이날 오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 양 부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전날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힌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측에 공식적인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됨.
-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면 이러한 훈련도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측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 이날 통화에서 양 부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 부장은 포격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측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국내 분위기를 설명하고 “중국측이 이번 사태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책임있게 판단해서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 양 부장은 김 장관의 설명과 지적을 경청한 뒤 “중국으로서도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정세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외교 당국자가 전했다.
- 양 부장은 당초 이날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4일 밤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연기를 통보했다. 양 부장은 방한 연기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김 장관은 “가능



한 시기에 서울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양국 장관은 이와 함께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과 협의를 계속해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 당국자가 밝혔다. 이날 전화통화는 오후 6시부터 37분간 이뤄졌음.

● 中전인대대표 “한반도 냉정과 절제 필요”(11/24)

-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냉정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자폐이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자 부위원장은 시카고글로벌문제협의회가 이날 시카고에서 진행한 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음.
- 자 부위원장은 “한국과 북한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의 핵 문제는 외교적인 접근법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6자회담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중국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긴밀하게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자 부위원장은 “다만 문제가 복잡하고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 한·일 관계

● 日총리 “中, 北에 단호한 태도 보여야”(11/24)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북한은 즉시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하는데, 특히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간 총리는 이날 정오부터 30분간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북의) 포격은 우발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일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과 중국이 북한에 무력 도발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간 총리는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중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일본도 이러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간 총리는 또 “천안함 사건도 용납이 안 될 뿐더러 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더욱 용납이 안 돼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북한의 천안함 사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발표에 이어진 이번 포격은 도발 행위로 결론짓는다”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즉각 규탄하고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음. 이어 이 대통령



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과거와 다르다. 일반 주민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이뤄졌고, 연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저지른 도발이라는 점에서 계산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음. 이밖에 두 정상은 대북 문제와 관련, 한·미·일 3국간 실무급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李대통령, 재일 한국인 참정권 논의>(11/22)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야마구치 나쓰오(山口 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음. 특히 이날 접견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과 대한 공명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공명당은 전통적으로 친한(親韓)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나도 공명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음. 이에 야마구치 대표는 재일 한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공명당의 공약인 만큼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야마구치 대표는 또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반환에 대해 “이런 일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공명당이 다른 당도 적극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음.
- 그는 이어 “G20의 의장국으로서 아주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또 최근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 정상의 만남을 중재하는 것을 보고 일본에서는 이 대통령의 도량이 크다는 평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야마구치 대표는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서 한·중·일 및 한·미·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음.

라. 미·중 관계

● <中, 한미 연합훈련 긴장속 예의주시>(11/28)

- 미국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대규모 서해 한미연합훈련이 28일 이른 오전부터 실시된 가운데 훈련에 반대 입장을 천명해 온 중국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사태 전개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임.
- 외교 분야의 실무 사령탑인 다이빙궈(戴炳國) 국무위원을 전날 한국에 급파하는 등 외교적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락 없이 이뤄지는 군사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의 26일 성명 발표 이후 이번 연합훈련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언론들은 이날 연합훈련의 개시 소식을 이른 아침부터 비중있게 다루며 예의주시하고 있음.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남한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 해상 훈련을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논평 없이 사실을 중심으로



- 훈련 규모와 일정을 소개했음.
- 통신은 중국 측 EEZ 안에서 이뤄지는 훈련에 반대한다는 외교부 대변인의 반대 성명을 재차 환기시키면서도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고 지역 안정과 억지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주한미군의 설명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 그러나 통신은 연합훈련을 겨냥해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하겠다는 북한의 반응도 자세히 소개하면서 남북 사이의 추가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음.
 -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일간지 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 28일자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미 항모의 황해 진입이 각국의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뽑긴 했지만 기사 내용은 연합뉴스 등 주요 외신을 인용해 사실 위주로 채워넣었음.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도 이날 훈련 개시 상황을 전하면서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이미 중국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장의 말을 전했다. 중국신문사는 그러면서 양제츠 외교부장이 26일 지재룡 북한대사를 면담하고 김성환 외교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지며 당사자들에게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면서 대화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 아울러 관영 중국중앙(CC)TV 뉴스 전문채널도 매 시각마다 한미 연합훈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을 반복해 전하고 있음.

● 美합참의장 “中, 北 압박 강화해야”(11/27)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중국이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멀린 의장은 오는 28일 방송될 미 CNN방송의 대담 프로그램 ‘파리드 자카리아 GPS’에 출연, 이같이 지적한 뒤 “중국이 왜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그는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중국은 ‘이 사람(this guy)’을 통제하려 하고 있지만 과연 통제 가능한지 확신이 안 간다”면서 통제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김 위원장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그는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단언한 뒤 “그것이 바로 중국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라며 “지금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바로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멀린 의장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사건이 모두 김 위원장의 권력승계와 관련돼 있다고 진단했음. 그는 김 위원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인물”이라고 비꼬면서 나쁜 행동으로 보상을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中, 美에 “종교자유 공격말라”(11/26)

- 중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음. 통신은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매년 중국의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 중국의 종교와 인권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홍 대변인은 “중국내 모든 민족이 중국법에 따른 최대한의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양자관계발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음.
- 미 국무부는 지난해 1월 중국을 북한, 미얀마, 이란,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으며, 지난 17일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 발표 때 이런 내용을 다시 확인했음.

● 中, 항모참가 韓美 서해군사훈련 우려(11/25)

- 중국 정부가 25일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국과 미국의 서해 합동 군사훈련에 우려를 표시했음.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보고 있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이날 ‘예의주시한다’는 의미의 관주(慣注)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는 통상 ‘우려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됨.
- 그는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유관 각측이 더욱 긴장완화에 유리하고 한반도 평화에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사람이 다치고 재산 손실이 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태 진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은 유관 각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평화에 해를 끼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중국은 남북한이 냉정과 절제를 지키고 대화접촉을 하루빨리 시작해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형세에 대해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홍 대변인은 또 “현재 상황에서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각 측이 노력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타당하게 각 측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를 해결해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안정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그는 아울러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 연기를 한국 정부가 이해해준 데 감사하며 차후에 일정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美 “중국, 대북 영향력 행사하라”(11/25)

- 미국은 24일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전방위로 압박했음.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잇단 공개적 언급을 통해 중국의 적극적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심축”이라면서 “중국이 우리와 같이 현재의 상황과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정말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첫째, 북한에 도발의 의한 긴장을 완화하고, 둘째로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이 그 영향력을 사용하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이런 메시지가 중국 측에 이미 전달됐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조만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중 양국간의 고위급 접촉도 수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크롤리 차관보는 “이번 건은 ‘도발적 행동들은 부적절하며 도움이 안되고 중단돼야 한다’는 일관되고 일치된 메시지를 북한이 받아야 하는 분명한 경우”라면서 “이것이 어제 우리가 중국에 전달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준수해야 할 국제적 룰들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음.
-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의도된 명백히 계획된 행동”이라고 거듭 비난했음. 하지만 그는 이번 도발이 광범위한 차원의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일회성(one-off)’ 도발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확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음.

● 美하원 외교위원장 “中, 대북 지원 보류해야”(11/24)

- 하워드 버먼(민주,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 “중국은 도발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버먼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이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각별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버먼 위원장은 “한반도의 불안정은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에는 더 더욱 그렇다”고 상기시켰음.



- 버먼 위원장은 “북한의 해안포 공격은 한반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북한은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한국 국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 또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일리아나 로스-레티닌(공화. 플로리다) 외교위 간사도 성명을 내고 “이번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점점 더 도발적이 되고 있다는 최신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음.
- 레티닌 간사는 “천안함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번 위기에서 한국을 굳건히 지지해야 한다”면서 “지난 2년간 미국의 대응이 너무 약해서 북한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도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선택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음.
- 레티닌 간사는 “미국은 즉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북한 정권에 대해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은 강력한 새 제재를 채택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마. 중·러 관계

● 원자바오 “어떤 군사적 도발행위도 반대”(11/25)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군사적 도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음.
- 러시아를 방문중인 원 총리는 24일 모스크바의 대통령 관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만나 회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중국 수뇌부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오는 28일부터 미국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서해 합동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것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됨.
- 원 총리는 “현재 엄중하고 복잡한 정세에 당면하고 있다”면서 “유관 각측이 최대한의 자제를 유지해야 하며 국제사회 역시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데 유리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데 찬성하며 양자 및 다자 체제를 통해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이런 가운데 반관영 중국 신문사는 원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간 회담에서 연평도 포격사건 논의 소식을 전하면서 “원 총리가 어떤 무력 위협에도 반대한다”고 전했다.



- 이런 가운데 원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기초가 튼튼하고 내용도 풍부하며 그 잠재력도 크다고 평가하고 정치적 신뢰와 상호 지지, 실무협력을 심화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
- 지난 22일 러시아 방문을 시작했던 원 총리는 방러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을 갖고 견고하고 강력한 중·러 관계는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뿐더러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평형을 유지하고 세계 진보와 발전을 보장한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음.

● 러-中, 교역서 양국 통화 사용 확대키로(11/24)

-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중국의 ‘밀월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음.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3일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정례 회담에서 양측은 20개가 넘는 협력 협정과 문서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가 24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금융, 무역,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큰 성과는 금융 분야에서 나왔음. 푸틴 총리는 이날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양국이 교역에서 러시아 루블화와 중국 위안화의 사용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지금까지 양국 간 무역 거래에서 주로 사용해 오던 달러화 대신 양국 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것이었음.
- 푸틴은 이를 위해 “현재 중국 외환거래소에서 루블화 매매가 시작했으며, 올 12월 초부터는 모스크바에서 위안화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 전문가들은 양국의 무역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어 루블화와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올해 1~9월 양국 무역 규모는 4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음.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두 나라의 무역 규모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음.
-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의 성과도 작지 않았음. 러시아 원전 건설회사인 ‘아톰 스토이 익스포트’와 중국 ‘장쑤성 원자력에너지회사’는 황해 연안인 장쑤성 쉰윈강 인근에 있는 티안완(Tianwan) 원전 3,4 호기 원자로 건설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음.
- 중국 최대 규모인 티안완 원전 1,2호기 원자로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돼 2007년 6월과 9월 각각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태임. 석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 원전 건설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유럽과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러시아가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임.
- 푸틴 총리는 또 “(최근 완공된) 시베리아 스코보로디노와 중국 다칭을 연결하는 송유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갈 것”이



라고 밝혔음. 총리는 양국 간의 가스공급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음.

- 이밖에 러시아 최대상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중국 수출입은행이 양국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신용을 개설키로 했다고 푸틴 총리는 밝혔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